3월26일 2백회 기념공연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 자비전파로 자리매김

11억원모금 1백92세대에 '재활까지 보조'

◇'거룩한 만남'의 진행자 정목스님이 방송으로 소개된 어려운 이웃을 방문해 격려하고 있다.

소아마비로 어려운 삶을 지켜온 박병선씨(37). 그에게는 생후 1백일이 지나서 심한 소아마비증세가 나타났다.

그래서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호적에 오를수 없었다.

불굴의 의지로 살아온 박병선씨는 손가락도 4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나는 노력을 곁들인 독학으로 공구를 만들며 어렵게 살고있다.

박씨의 평생소원은 남의 연탄수레를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고 또하나는 기차를 단 한번만 타보는 것이었다. 한번도 울지않았다며 슬픔을 삭이던 박병선씨는 '거룩한 만남'에서 끝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이방송을 들은 철도동호회에서는 3월 벚꽃열차 운행시 소원을 풀어주겠다는 제의를 해와 한가지 소원은 이루게 됐다.

또 구리시에 사는 정훈이는 백혈병을 앓고있는 시한부 어린이.

정훈이의 이야기가 '거룩한 만남'을 통해 소개되자 군인들이 한 트럭 을 타고와 헌혈을 해주고 갔으며 이날 모금한 성금 2천9백60만원으로 수술까지 하여 건강한 어린이가 됐다.

우리 주위의 굶주리고 헐벗은 이웃의 이야기를 전하는 불교방송의 '거룩한 만남'(담당 PD 최윤희)이 진행되는 매주 금요일 오전 9시05분부터 1시간동안은 청취자들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하지못해 연신 손수건을 꺼낸다.

91년 4월 5일 첫방송되어 오는 4월 5일로 2백회 방송을 맞이하는 '거룩한 만남'은 첫방송부터 청취자의 가슴을 울려 불교방송의 참모습과 한번 방송에 평균 7백여만원의 성금이 답지하는 호응을 보이고있다.

'거룩한 만남'은 현재까지 방송을 통해 192세대에게 11억여원의 도움을 주었고 방송이외에도 도심공중화장실에서 기거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2백여 세대를 훨씬 넘는다.

'거룩한 만남'이 단지 방송프로로 그치지 않고 감동의 밀물을 넘치나게 하는 것은 흔히 방송이 갖는 일회성이 아닌 완전자활까지 책임진다는 점이다.

그래서인지 수를 거듭할수록 감동의 메아리는 더욱 커져 이제는 개인 의지와 방송의 한계까지도 뛰어 넘어 버렸다. '거룩한 만남'에는 기독교, 천주교신자들도 참여 종교의 벽까지 허물어 버리고 있다.

매주 한차례의 방송이지만 12명의 자원봉사자들은 각 구청과 동사무소를 다니면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면담하여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파악한다.

그렇게해서 선정이 되면 장혜정 리포터와오선희 보살 등 자원봉사자 교통통신원이 함께 취재한다.

전반부에는 자원봉사자와 리포터가 이십여분동안 취재내용을 방송하고 후반부에는 동참 전화를 받는데 청취자 전화가 빗발쳐 방송 업무에 지장이 갈 정도라고.

특히 이 프로가 인기있는 이유는 정목스님의 애절한 호소력과 이웃을 위한 열린 마음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거룩한 만남'은 사회봉사 노력으로 91년 한국방송대상(사회부문)을 수상했고 라디오 방송프로로는 처음으로 방송위원회가 이달의 좋은프로그램으로 선정하기도했다.

이달 26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될 2백회특집 기념공연은 거룩한 만남을 더욱 거룩하게해 말없이 참여해준 분들에게 보답하는 의미로 준비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코리아리서치, 선학원 분원장 설문조사

"정관개정 요구 부당" 90%

현상유지선 조계종과 타협 55%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정일스님)의 분원장들은 현재 조계종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정관개정 요구와 권리제한 방침에 대해 대다수가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조계종의 제재조치시 '새로운 종단이 되자'는 견해가 과반수 이상(57%)임이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재)선학원이 조사기관인 「코리아 리서치센터」에 의뢰 지난해 12월7일 조사돼 지난 22일 교계기자간담회때 발표된 「재단법인 선학원 전국 분원장회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선학원이 조계종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향후 활동방향 정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써 조사된 이번 여론조사의 대상은 총 1백35명이다.(선학원 분원은 299곳, 포교원은 226곳 총 525곳)

선학원 스님들은 사설사암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담고 있는 조계종 종헌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제한 방침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의견이 89.6%이고 '정당하다'가 8.1%였다. 교육기회 제한방침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가 92.6%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조계종이 요구하고 있는 명의변경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8.1%가 부당하다고 응답하고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75.6%)고 답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61.5%가 조계종에 재산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16.3%가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행사는 부당하다고 답했다.

또한 조계종헌의 개정 배경에 대해서는 '법인와해 흡수'(44.4%) 조계종의 세력 확장(43.7%) 재정분담압박(31.1%)순으로 답했고, 응답자의 85.2%가 선학원이 조계종에 비해 확실하게 사제상승을 보장해 줄것이라고 응답했다.

최근의 조계종의 제재조치에 대해 54.8%가 '선학원을 현상유지하는 선에서 타협'을 44.4%가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히고 조계종이 승적관련 제재시에는 '종단이 되어야 한다'(57%)가 '종단이 되어서는 안된다'(31.1%)보다 높아 창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선학원에 증여(또는 명의등록)동기로는 △재산압류 회피 △사제상승 보장 △인사·관리상의 불간섭 △재단법인이어서 순서로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숙〉

불교자료 전산화 가속

대장경등 CD롬 제작·통신서비스 …삼성도 12억투입

팔만대장경을 비롯한 불교관련 각종 자료와 정보들이 전산화돼 통신망서비스 및 CD-롬으로 보급된다.

해인사 장경연구소와 동국역경원, 불교방송 불교정보연구소는 전체 불교계 차원에서 대장경연구자와 전산연구자들이 참여, 대장경 전산개발을 활성화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다음주중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진계획이 결정되면, 역경원은 대장경의 분류.색인을 위한 자료와 인력을, 불교정보연구소는 대장경의 데이터베이스와 코드화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장경연구소에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장경연구소는 이에앞서 삼성문화재단과 올해안에 대장경을 CD-롬으로 제작키로 했다. 삼성은 이에따라 글꼴개발에 착수했으며, 전산입력작업에 곧 들어갈 예정이다. 대장경CD-롬은 연말쯤 제작 완료되며, 내년부터는 통신망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삼성측은 12억원을 투입한다.

한글대장경도 올해안에 통신망 서비스를 실시한다. 역경원과 불교정보연구소는 지금까지 번역된 대장경 147권을 정부의 공공데이터베이스 사업의 일환으로 참가, 전산화할 계획이다. 불교정보연구소는 이미 정부에 사업신청을 마쳤으며, 올해 안에 전산화를 완료해 한국통신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실시한다.

한편 불교정보연구소가 지난해 공공DB사업으로 개발한 '한국사찰' '한국불교역사인물' '한국불교소사' '한국불교계인물' 등의 자료도 이번달부터 시험서비스를 거쳐 8월부터는 일반에 본격 서비스된다.

〈한국불교총람〉도 일부 자료를 수정 보완해 12월경 CD-롬으로 제작된다. 〈총람〉은 한국불교역사와 현황, 종단 법인단체 등의 자료, 인명 사찰 문화재 도서논문 등의 목록이 수록된다.

'건잠머리 컴퓨터연구소'는 '사찰' '선사행적'을 CD-롬으로 제작, 8월께 발매한다. 이미 제작에 필요한 자료준비를 마쳤으며, CD-롬화에 필요한 자료는 소설가 김충호씨가 제공키로 했다.

전산화 작업을 통한 각종 불교자료, 정보는 통신망 및 CD롬 등 새로운 매체를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불교정보의 대중화는 물론 불교학 연구 및 포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 기자〉

청화·지선스님 공동의장 실천승가회, 사업안확정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지난 21일 봉은사 선불당에서 회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청화스님과 지선스님을 공동의장으로 한 새로운 체제로 출범했다.

총회 준비위원회의 경과보고로 시작된 이날 총회에서 실천승가회는 의장선출을 비롯한 부분적 정관개정과 함께 직제를 변경·신설하고 이에 따른 임원진을 선출하는 한편 95년도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

실천승가회는 의장선출에 이어 부의장에 명진,효림,종림스님을 선출하고 새로 신설된 사무처의 불교정론, 출판부, 집행위의 종무행정위원회, 종책위원회등의 위원장등도 선출했다.

중앙승가대 입학식 2일 정진관 대강당

중앙승가대는 오는 2일 오전 10시30분 정진관 대강당에서 입학식을 갖는다. 이날 입학식에는 불교학과 48명, 사회복지학과 38명을 비롯 편입학생 9명을 포함, 총 95명의 신입생이 입학한다.

보림사 목판불경 발견

고서30권 … 조선중기 제작된듯

전남 장흥군 유치면 보림사에서 조선중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판본불경등 고서(古書) 30권이 지난 22일 발견됐다.

순천대 박물관에 따르면, 보림사 복원추진위원회의 용역으로 지난 2월13일부터 보림사내의 유구(遺構)와 지표를 조사하던 중 사천왕문내의 사천왕상 발안과 무릎등에서 이들 고서를 발견한 것.

이들 고서는 활자기술발전사와 보림사 역사를 규명하는데 귀중한 자료일뿐만 아니라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발굴팀은 현재 문화재관리국 전문가에게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보림사는 6·25당시 전소됐으나 사천왕상만 유일하게 보전, 전남 유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돼 있다.

유랑객승 불법행위 호법부서 강력조치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부장 혜창스님)은 전국 사찰을 떠돌며 금품을 요구하는 유랑객승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불사를 회향하는 사찰이나 비구니 사찰 등을 전전하며 여비와 약값 등을 요구하는 유랑객승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피해 사찰이 속출함에 따른 조치이다. 승려들의 인적사항을 기재 해당교구 호법국 및 총무원 호법부에 신고를 당부했다.

양분 대구불교계 통합

광역시 사암연 준비위 구성…3월창립

십수년간 양분됐던 대구 불교계가 지자제를 앞두고 통합을 하기 위한 발걸음이 분주하다.

(가칭)'대구광역시사암주지연합회'창립 준비위원회(위원장 원명스님, 관음사 주지)는 지난달 18일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에서 신년하례 및 창립준비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동화사 조실 진제스님, 보광원 조실 화산스님 등 원로스님들과 대구지역 지도자 스님, 각계 기관장, 교계 신행단체장 등 1백50여명이 참석한 신년하례법회에 이어 발기인대회에서는 위원장 원명스님을 비롯 동화사측과 마하야나측 각 5인씩 11인으로 창립준비위원을 구성하고 전체사항을 위임했다.

이날 태일스님(동화사 부주지)에 의해 낭독된 발기취지문에서 "양분된 지역승가의 통합은 역사와 시대에 부응하는 당연한 일로써 만시지탄의 감이 있기는 하나 그동안의 불신과 분화의 벽을 넘어 의연한 승가상을 확립하자"고 역설했다.

한편 동화사는 대불청 대구지구 대불련 대구·경북지부, 청교련 대구지구 군법당 교도소등에 연간 8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하는등 지역 불교청년회와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하고 있다.

음성공양·대법회개최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오는 3·12일

3월들어 대구지역에 불교합창단 발표회 및 대법회가 잇따라 열려 이 지역 불자들을 들뜨게 하고 있다.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지원장 혜게스님)은 오는 3일 오후7시와 12일 오후2시 '송언(頌言)합창단 음성공양의 밤'과 '대구·경북지역민과 호국영령을 위한 대법회'를 각각 개최한다.

대구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송언합창단 제1회 선법가 발표회는 귀의, 발심, 수행, 깨달음, 회향의 5단계 수행과정에 맞춰 공연할 예정이어서 이지역 불자들에게 살아있는 법음을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실내체육관에서 열리게 될 대법회에는 광복 50주년을 기념한 호국영령 천도재와 대행스님의 법문이 이어지며 지역민과의 질의·응답식 대화시간도 마련된다.

한편 대구지원은 대법회에 앞서 오전 11시 대구 수송구 중동에 대지 450여평 규모의 대법당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홍승희씨 이사선임 대한불교진흥원

대한불교 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은 지난 22일 오전 11시 신라호텔에서 정기 이사회를 개최, 홍승희 감사(전 재무장관)를 새 이사로 승인했다.

진흥원은 이날 이사회에서 94년도 사업보고 및 회계결산을 승인하고 지난 2월28일 임기만료된 서황룡 이사를 해임, 후임으로 홍승희 감사를 영입했다. 신임 홍승희 이사는 전 재무장관과 외환은행장을 역임했으며 진흥원에서 20여년간 감사로 재직해왔다.

한편 홍이사 후임에는 구본회 회계사가 감사로 임명됐다.

부적판매·헌납강요 일련정종 검찰조사

국내에서 불법 종교활동을 펼쳐온 일본불교의 하나인 일련정종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실시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달 14일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각종 불법종교활동을 해온 종로구 숭인동 진선빌딩 4층에 소재한 일련정종 국내연락사무소(소장 이용한)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일련종 국내연락사무소는 지난 93년 10월부터 1월19일까지 신도모집하고 포교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1만원에서 20만원상당의 부적을 판매·공양금 명목으로 헌납 강요하는등 일본인 승려들의 불법종교활동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수맥방지 온돌침대

전기용품 Q마크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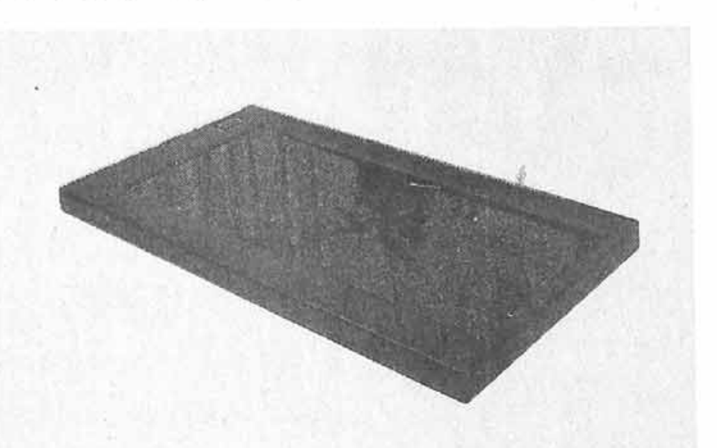
품질보증

병이 있는 사람은 병세가 호전되거나 치유되고 허약한 사람은 건강을 되찾고 건강한 사람은 더욱 건강하게 태어난다

돌

자연석

인간의 몸은 소우주 자연의 기를 원한다



전국에서 난치병의 개선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화로 상담하여 주세요

왜 많은 분들이 **수맥방지 온돌침대**의 효능에 만족하실까요?

민영실업

(02)208-7974~5

부산 (051)412-9351

건강상담실 운영

■전화 주시면 계약금만으로 바로 설치해드립니다.

고객감사 현금가 10개월 할부 단행!!

생산자 — 총판 — 대리점 — 백화점 — 소비자

●기존 사용하시는 침대를 수맥방지 돌침대로 개조해 드립니다.

■현대인의 질병 그 원인이 수맥(水脈)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수맥의 기(氣)는 인체의 조화를 깨뜨리기 때문에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현대인은 이 수맥과 콘크리트 벽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라듐방사체와 독소로 인하여 건강을 잃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맥방지 돌침대는 이러한 독소와 수맥을 방지하고 실내의 유해한 공기를 정화하여 편안한 수면과 건강을 지켜주는 돌찜질기입니다.

■온돌침대는 확실한 효과로 선택하십시오!

●혈액순환의 촉진 및 신진대사의 활성화 ●통증의 경감 작용과 조직의 재생작용으로 신경통·류마티스·관절염·디스크·고혈압·당뇨병·중풍·냉대하증·산후조리·교통사고 후유증 등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과 ●피로회복·불면증·비만·미용 등에 효과 있습니다.